

권영진 대구시장 “통합신공항 부지 늦어도 2월 중 결정”

경북 2곳 선정후 10개월간 소강 '구정 전', '2월 중' 시기 못 박아 통합신공항 추진에 강력한 의지

민선 6기 권영진 대구시장이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5일 권 시장은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는 빠르면 구정 전에 결정해 대구시민들의 구정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아무리 늦어도 2월 중에는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통합신공항은 지난해 6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K2군공항·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국방부가 올해 2월 16일 대구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 2곳을 선정·발표한 이후 10개월 동안 소강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를 중심으로 ‘대구공항은 존치시키고 군공항만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에 맞서 민간공항 이전을 전제로 후처리 개발비용으로 군공항을 이전한다는 군공항이전특별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반박이 나오는 등 논란을 키워왔다. 하지만 권 시장은 ‘구정 전’, ‘2월 중’이라는 시기를 못 박아 통합신공항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권 시장은 △군용 항공기지의 소유으로 인한 주민 생활권의 심각한 침해 △최근 이용객이 급증해 포화상태에 직면한 대구공항의 현실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해외 항공수요와 대구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명분으로 통합신공항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5일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경북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 두 곳을 놓고 K2군공항의 이전 부지 선정 작업을 벌이는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통합신공항 후보지 결정의 전단계로 K2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이번 권 시장의 이전 후보지 선정 시기의 사실상 확정 발인과 맞물려 주목되고 있다.

내년 1월 15일 이전에 개최 예정인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예비이전후보지 둘 중 하나를 이전후보지로 압축할 예정이다. 권 시장이 2차 회의 이전까지 경북도와 군위, 의성 지자체와의 합의를 이뤄내면 즉시 K2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이 완료된다. 사실상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의 확정이다. 또한 이날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의 선정기준과 절차에 따른 후보지결정에 따르기로 1차 회의에서 합의한 만큼 다소의 시기 문제가 있을 뿐 통합신공항 조기건설은 가시권에 들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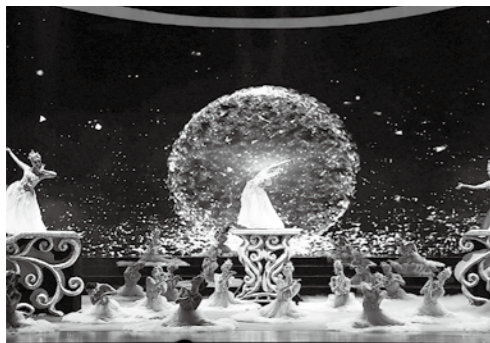
조여은 기자



대구대표단, 동아시아 문화도시 창사 폐막식 참석

대학생 금연서포터즈 역할 ‘톡톡’

후난위성방송국 방문 폐막식서 성과 공유 공연 관람 의견 교환



대구대표단이 후난위성방송국을 방문해 상호 협조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창사 폐막식에 참석해 1년간 성과 공유 및 3국 문화공연을 관람했다. 또 교류만찬회에서 향후 교류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2017 동아시아 문화도시 마지막 공식행사인 ‘동아시아문화도시 2017 창사폐막식’이 지난 21일 중국 창사(長沙)시 메시호 국제예술센터 대극원에서 열렸다. 창사 폐막행사는 한 해 동안의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의 여정과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지속적인 교류방향과 미래지향적인 상호이해와 우호를 심화시키기 위한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김승수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대표단, 문화사절단 23명은 동아시아문화도시 창사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창사를 방문했다. 후난위성방송국은 중국의 성급 위성텔레비전 중 5년 연속 1위 차지, 3년 연속 중국에서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은 미디어로 평가 받고 있으며, 3년 연속으로 중국의 500대 브랜드에 진입한 브랜드 가치가 높은 방송국이다. 김승수 행정부시장은 후난위성방송국 저우시웅(周雄) 후난위성방송 공산당위원회 서기(부시장급)의 면담을 통해 대구의 한류 프로그램 활영지 소개책자를 보여주며, 젊은이들이 즐겨보는 후난위성방송국의 망과(芒果)TV



에서 대구를 소재로 한 한류드라마를 많이 방영해 대구를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대구의 컬러풀페스티벌, 차맥 축제 때 대구를 방문 대구의 관광지와 축제·음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제작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과 동아시아 문화도시로서 양 도시의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제작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대구방문을 요청하자 부시장이 흔쾌히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천원하오(陳文浩) 창사시장은 “오늘 창사 폐막식은 끝이 아니라 대구, 교토, 창사가 문화로 맺은 인연은 계속될 것이며, 앞으로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공공인식과 교류 심화 확대를 통해 경제, 무역 등 교류분야를 통해 우정의 꽃을 피워 나가고 한·중·일 문화교류와 우정을 깊게 해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자”고 말했다. 대구시 김승수 행정부시장은 “2017년 동아시아문화도시 대구, 창사, 교토는 역대 어느 문화도시보다 알차고 다채로운 문화교류와 협력사업을 해 왔다고 자부한다”며, “1년간 문화나눔으로 씨를 뿌렸다면 향후 문화융합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문화콘텐츠 발굴 등 아시아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주자”고 말했다. 또 “서경(書經)에 ‘같은 목표를 위해 여럿이 힘을 합쳐 힘쓴다’는 뜻의 ‘동심동덕(同心同德)’이라는 말이 있듯이 세 도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서 상상발전하고 공동번영을 위해 합심 노력해 가자”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개최된 창사 폐막식에는 김승수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중국 창사시 인민 정부 천원하오(陳文浩) 창사시장, 일본 교토시 무라카미 케이코 교토 부시장(女), 위신릉(馮新榮) 후난성 문화청 청장, 씨에 진잉(謝金英) 문화부 대외연락국 국장 등 1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대구시는 시립무용단의 2인무로 두 무용수의 만남과 이별을 움직임으로 표현하면서 인간의 몸, 움직임이 가장 아름다우며, 인간의 본성임을 표현한 현대무용 ‘꽃보다 아름다운’과, 시립국악단의 국악기와 피아노, 첼로와 어우러져 조선시대 뛰어난 예인(藝人)이던 기생매창의 4개의 시조를 곡으로 엮은 정가와 국악양상블 ‘별한(別恨)’을 선보였다. 창사폐막식은 3개 도시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불꽃 퍼포먼스’를 끝으로 대대원의 막을 내렸다. 대구시 김승수 행정부시장은 “이번 창사 폐막식은 끝이 아니라 동아시아 문화교류와 화합, 아시아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새로운 계기가 됐고 대구, 창사, 교토 세 도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서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도시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오늘 대학생 금연서포터즈 금연클리닉 성과 공유대회

금연상담사 중 우수 활동자에게 표창을 시상하고 유쾌한 이노베이션 주제로 대학생들에게 유익한 강의 등으로 진행된다. 대학생 금연서포터즈로서 표창을 받게 된 조성윤 학생은 “금연교육을 받은 후 흡연학생들이 처음엔 주저하다가 비슷한 또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니, 흡연을 하게 된 속마음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고, 흡연학생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편견을 버리고 나니, 나의 청소년기 경험을 공유하고 금연 상담으로 이어지게 돼 같은 눈높이로 바라보면서 소통을 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한다. 2017년 대학생 금연서포터즈는 보건소와 학교와 연계해 8개 고등학교 학생 158명을 대상으로 금연교육 및 멘토링을 진행해 77명이 금연에 성공했으며,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 22회 운영했다. 이상하 기자

대구시 여성회관, 연말 훈훈한 이웃돕기 활동

한뼘한뼘 마음 담아 직접 제작 겨울이불·성금 이웃에 전달



대구시 여성회관 자원활동센터에서는 지난 21일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제작한 이불과 성금을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전달했다. 대구시 여성회관 자원활동센터에서는 연말을 맞아 지난 21일 쪽방상담소를 찾아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제작하고 한뼘한뼘 재봉질 한 겨울이불 19채를 전달했으며, 알뜰장터 운영 판매 수익금 100만원을 방송국을 통해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재봉 재능기부로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는 여성회관 자원활동센터 희망나눔터 자원봉사자들은 유난히 추운 겨울날씨를 미리 알아차린 듯 지난 가을부터 3개월 동안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담아 부지런히 재봉틀을 돌려왔다. 지난 11월에도 평소 후원해오던 부자세대에 이미 이불 2채를 전달했으며, 이번엔 홀로 겨울을 나는 쪽방 이웃들에게 이불 19채를 전달했다. 김진희 기자

또한 여성회관 자원활동센터에서는 격월제로 알뜰장터를 운영해 그 판매수익금을 지역 소외된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첫걸 알뜰장터를 열어 생김 판매수익금 100만원을 연말 이웃사랑 실천 성금으로 쾌척해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대구시 번수옥 여성회관장은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하지만 이웃과 더불어 사는 마음을 나누고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있어 우리사회는 더욱 희망차고 밝은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전화 한통이면 OK!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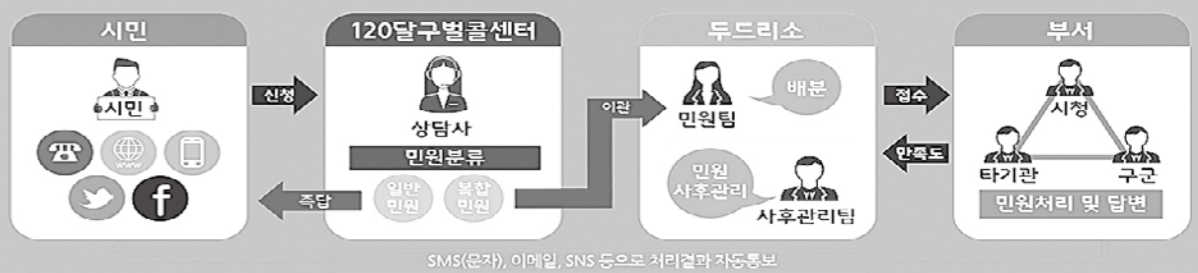
달구벌콜센터



01 120달구벌콜센터 연중무휴! / 평일 08:00~21:00, 주말·공휴일 09:00~18:00

02 상담분야 / 여권, 차량등록, 교통, 상수도, 문화관광, 보건복지, 환경, 시장인반

03 이용방법 / - 전화, 문자 상담(국번없이 120) - 예약상담(홈페이지에 예약하시면 원하는 시간에 상담) - 온라인 상담(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 외국어 상담(영어, 중국어, 일본어)



04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 상담사와 연결이 빨라졌습니다. 모든 민원의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과정을 문자로 알려 줍니다.

민원 제안여기다 두드리스

온라인민원제안 대표창구 두드리스 검색

인터넷, 모바일로 언제나 ~ http://dudeuriso.daegu.go.kr http://smart.daegu.go.kr

두드리스란? 대구시의 모든 민원과 제안을 통한,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봉화 분천역 한겨울 산타마을 개장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과 연계 풍성한 관광객 환영이벤트도 펼쳐



경북도는 25일 봉화 분천역 광장에서 관광객, 마을주민, 파워블로거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한겨울 산타마을' 개장식을 열었다.

이날 개장식은 난타공연, 산타마을 개장 및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꽃다발 증정, 관광객 경품 증정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었다.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겨울 산타마을은 지난 23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58일간 운영할 예정이며, 눈썰매장, 얼음썰매장, 산타 레일바이크, 당나귀 눈꽃마차, 산타의 집, 이글루 등 다양한 즐길 거리와 세평 하늘숲,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등을 설치하여 보다 풍성한 관람 및 체험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마을주민이 운영하는 토속음식점, 봉화군 농특산물 판매점, 산타카페 등도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마쳤고 잠시나마 추위를 녹일 수 있는 군고구마, 어묵국물, 호빵 등 간식거리도 풍성하다.



분천 산타마을은 2014년 겨울 산타마을(58일간)을 시작으로 올해 여름까지 6회 운영, 50여만명이 다녀가는 등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2016년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문화체육관광부)되어 우리나라의 대

표 관광지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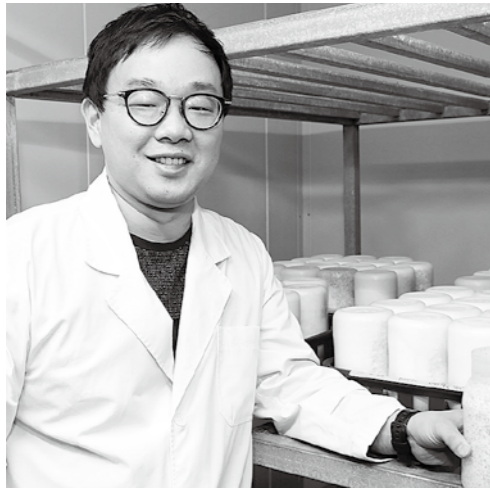
김종수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산타마을 개장식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열망하는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응원으로 시작되어 어느 해 보다 의미있는 축제가 될 것 같다"면서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리는 올 겨울, 산타마을에서 자녀와 함께 얼음썰매도 타고 동심도 즐기는 등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화봉송 행사와 연계한 이색봉송(스파이더 행사) 세레모니로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전성기 기자

농업기술원 강민구 박사, 우수연구원상 수상

'친환경 버섯파리 포획기' 개발 농가보급 공로 인정 받아 선정



경북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2017년 농촌진흥사업 농업기술대상 평가에서 농업환경연구과 강민구 박사가 농업연구상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농촌진흥사업 농업기술대상은 농촌진흥청 및 전국 9개 도농업기술원 연구원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가장 우수한 연구성과를 거둔 연구원에게 수상

하는 영예로운 상으로 강민구 박사는 'PLS 대비 친환경 버섯 재배기술 개발 및 품종육성' 연구 성과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강 박사는 친환경 버섯재배를 위한 버섯파리 포획기술을 개발해 이를 전국 시범사업으로 확대 보급했으며, 국내 최초로 버섯재배 점적관수 시스템을 개발해 수분과다로 인한 병해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여 무농약 친환경 버섯의 안정생산과 품질향상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인정받았다.

또한 개발된 버섯파리 포획기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도내 2개 업체에 기술이전을 실시하여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전국으로 확대 보급함으로써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아울러 신소득 버섯 신제품 2종(아위스타리, 갈색양송이)을 육성, 품종보호출원을 했으며, 논문게재 10편, 터키 원예연구소와 국제 공동협업연구 등 다방면에서 큰 연구 성과를 거뒀다.

강민구 박사는 "농업인, 농업기술원 동료들의 협업연구를 통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 현장에서 즉시 활용되는 실용적인 연구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행복한 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용구 기자

눈에 독도 담고, 가슴에 애국정신 되새기다

올해 11개 중·고교 독도 청소년명예대원 학생 149명 독도 탐방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언제나 TV나 학교에서 배웠던 독도를 직접 보는 순간 왜 우리 민족이 독도를 이토록 지키려고 하였는지 알 것 같습니다"

"독도의용수비대원분들이 독도를 지키셨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경북도가 지원하고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가 주관한 '독도의용수비대 청소년명예대원 독도 탐방'에 참가했던 학생의 감상문 중 일부분의 내용이다.

교과서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던 독도를 중·고등 학생들이 직접 독도를 방문해서 느낀 점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그들의 탐방 감상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경북도는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에게 독도를 일본의 침탈로부터 지켜낸 독도의용수비대원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활동을 홍보

하고 독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지난 '13년부터 청소년 명예대원 독도탐방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가 매년 교육부를 통해 지정한 '독도의용수비대 청소년 명예대원 협력학교'의 독도 관련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11회에 걸쳐 11개 중·고교에서 149명의 학생과 12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협력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사업회로부터 지원 받은 300만원의 탐방비와 학교와 학생들이 경비를 일부 부담하여 교사의 인솔하에 여름방학기간 2박 3일 일정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탐방한다.

먼저 첫째 날에 울릉도에 도착하면 울릉도와 독도의 지리, 생태에 대해 배우게 된다.

화산폭발로 만들어진 울릉도의 자연환경과 육지에서 보지 못하는 식물과 새들을 보면서 학생들은 또 다른 감흥에 젖는다.

이튿날에는 이른 아침 독도행 관광선을 타고 독도에 도착한다.

독도에 머무는 시간은 겨우 30분 정도이지

만 이 짧은 순간에도 교과서에서 배웠던 이상의 것을 배우게 된다.

독도를 지켜낸 선열에 대한 고마움,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자랑스러움, 독도를 지켜나가겠다는 다짐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쳐 오른다.

눈에는 독도를 담고 가슴에는 애국정신을 되새기면서 교사와 학생들은 울릉도로 돌아온다.

오후에는 생존해 계신 독도의용수비대원분들과 귀중한 만남의 시간을 갖고 수비대원분들의 활약상을 들으면서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마지막 날에는 독도 박물관을 방문하여 전시된 역사적 자료를 보면서 독도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깊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독도와 울릉도 탐방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들은 아름다운 독도와 울릉도의 역사와 자연을 보고 배우면서 국토의 소중함을 느끼고 독도의용수비대원분들의 헌신을 기억한다. 정은환 기자

경북민물고기센터, 해수관상어 30종 500마리 특별전

25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경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울진)가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해 대형 수족관에서 볼 수 있는 해수관상어 30종 500여마리를 골라 특별전을 연다.

25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특별전에는 애니메이션 영화 '니모를 찾아서'의 주인공으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퍼플라크라운(니모)을 비롯해 블루담셀, 닛도랭, 피카소트리거, 도그페이스푸퍼, 펠스케일

나비고기 등 형형색색의 해수관상어와 산호초, 말미잘 등이 선보인다.

매주 화~일요일(월요일은 휴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가능하다.

이곳엔 평소 150여종 5000여 마리의 다양한 어종이 전시돼 있어 특별전 이상의 볼거리를 제공한다.

백상립 경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 소장은 "국내 최고의 살아있는 민물고기 전시체험관이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해 새로운 전시회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명품 생태체험



경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가 마련해 놓은 열대어 수족관들.

학습관이 되도록 전시환경 개선,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에 힘 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삼 기자

경북도 "면접때 양복 안 입고 와도 됩니다"

내년부터 면접 복장 자율화

경북도가 내년부터 공무원 채용 기간을 대폭 줄이고, 면접 복장을 자율화하기로 했다.

도는 25일 공무원 채용 접수부터 최종 합격자 선발까지의 기간을 올해보다 평균 20~30일을 단축해 수험생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줄

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6일 필기시험을 치렀던 제4회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내년 2월 예정)부터는 응시생들의 복장을 자율적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응시생들은 면접을 위해 정장을 따로 구입할 필요가 없이 평소 본인이 착용하는 단정한 복장을 하면 된다.

김용구 기자






'우리 과일'을 부르는 새로운 이름

경북과실통합브랜드

데일리

데일리는 이렇게 다릅니다!

1. 안전성이 보장된 현대화된 시설에서 생산합니다.
2. 선택, 중량 등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한 품질만 상품화 합니다.
3. 출고후에도 품질관리단을 운영하여 상품관리와 리콜제를 시행합니다.

맛있는 과일 고를때 꼭
[데일리] 마크를 확인하세요!



대구·경북, 크리스마스 맞아 백화점 등 '인산인해'

비로 인해 기온이 푹 떨어져 야외활동 보다는 실내에서 휴일 즐기는 시민들로 북적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새벽부터 내린 비로 인해 기온이 푹 떨어진 가운데 야외활동 보다는 실내에서 휴일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대구기상지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은 후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아 대체로 흐리고 오후 늦게까지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경북 북부 내륙지역 1~3cm, 울릉도와 독도는 3~10cm 등이다. 예상 강수량은 5~20mm 등이다.

새벽부터 내린 비로 인해 대구의 유명 백화점 등에는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백화점 안의 아이들은 부모에게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들고 함박웃음을 보였다. 연인들은 서로의 선물을 챙겨주기 위한 모습이였다.

대구시내 일대 유명 맛집과 패밀리 레스토랑 등에는 가족단위 및 친구, 연인 등이 식사를 즐기려는 모습이 보였다. 최근 개봉한 한국영화 강철비와 신과함께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극장가에는 평소 주말대비 5000여명이상이 영화 관람을 위해 찾았다. 최근 개봉한 한국영화 강철비와 신과함께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직장인 박진후(32) 씨는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추석 이후 오랜만에 대구를 찾았다"며 "오랜만에 부모님을 뵈는 만큼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저녁을 대접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가족과 함께 백화점을 찾은 김상호(41·수성구) 씨는 "일래는 아이들과 함께 야외를 가려고 했는데 비가 와 백화점을 찾았다"며 "백화점에 온 만큼 아이들 선물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학생 이상아(22·여·서구) 씨는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 주머니 선물을 찾으러 왔다"며 "오늘은 남자친구랑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는 등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즐겨 볼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맞아 24일 대구 신세계 백화점에 시민들로 가득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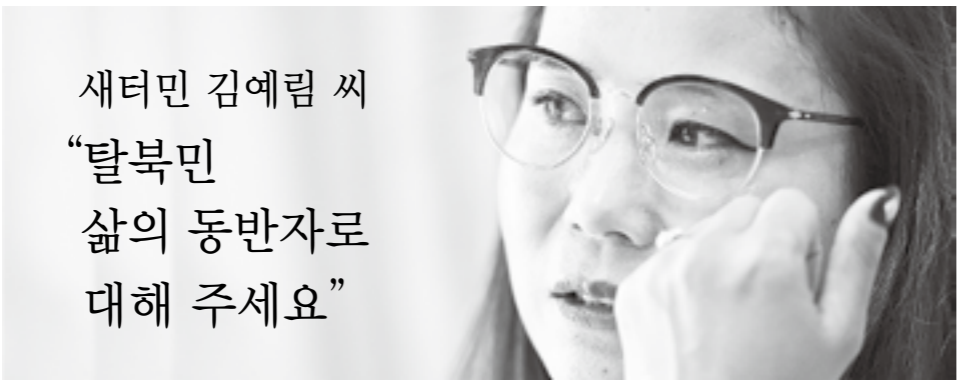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오후 4시 현재 대구·경북의 주요 고속도로는 지체 없이 원활한 교통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구 신천대로와 양산순환로, 달구벌

대로, 호국로, 안심로 등 주요 간선도로 등도 소통이 원활했다.

한국도로공사 경북본부 관계자는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많은 시민들이 대구 근교로

나갈 것으로 예상됐으나 비 때문인지 그렇지 않았다"며 "오후 늦은 시간에도 도내 주요 고속도로 등에서의 지·정체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새터민 김예림 씨 "탈북민 삶의 동반자로 대해 주세요"



통일강사 김예림 북한실상 알리다

"통일에 앞서 북한의 문화와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실상을 알리는 게 제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대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 김예림(사진·41·여) 씨는 "맑은 통하지만 딱딱하고 무서운 '북한사람'이란 이미지 때문에 일자리 잡기도 힘들다"며 "새터민을 우리 한민족으로, 남한의 한 국민으로서 그들을 동반자로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04년 5월 나이든 어머니와 네명의 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두만강을 건너기로 했다. 당시 그의 나이 25세였다.

김 씨는 "제 키가 152cm인데 턱 밑까지 물이 차올랐다. 명이 짧으면 죽고 길면 살 것으로 생각하고 강을 건너는 3분 20초에 일생을 맡겼다"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중국에 도착하면 한국으로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조선족에게 붙잡혀 한 중국인에게 시집을 갈 수밖에 없었다.

김 씨는 "중국인과 결혼해 살았지만 2009년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강제 북송될 처지였지만 운 좋게 풀려나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인천공항에 입국했다"고 말했다.

한국에 도착했지만 혐심증을 앓고 있던

그는 곧바로 생업전선에 뛰어들 수 없었다. 주위에 도움으로 대학에 입학한 그는 재능인 중국어를 살려 지난 3월 영진전문대학을 졸업했다. 현재는 북한의 실상을 전하는 통일 강사로 일하고 있다.

김 씨는 "새터민이란 사실을 알린다는 게 부담스럽지만 통일을 대비해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의 실상과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 서고 있다"고 했다.

그는 탈북을 위해 두만강을 건널 때 물에 대한 공포증이 생겨 샤워기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탈북민처럼 심한 심리적 외상(트라우마)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 생활에 대한 고충도 털어냈다. 김 씨는 "남한에 거주하는 많은 새터민이 남한 사회에 동화되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채 이방인 아닌 이방인처럼 소속감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서 "우리 새터민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근 신학 공부에 빠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김씨의 바람은 오직 하나였다. 김 씨는 "아직 북에 계신 어머니께 경제적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쉽다"며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머니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끝을 흐렸다. 김진희 기자

대구소방, 대형 복합스파 건물 긴급 안전대책 추진

복합 스파시설 22개소 정밀 실태조사, 문제점 대해 개선방안 마련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제천시 노블휘트니스 스파건물 대형화재 발생과 관련한 권영진 대구시장의 특별지시로 대구지역의 대형 복합 스파에 대한 긴급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21일 오후 총복 제천시 노블휘트니스

스파건물 대형화재로 인해 사망 29명 등의 대구도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대구소방본부는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대구지역 유사시설에 대한 긴급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목욕장과 헬스장 등이 입주해 있는 복합 스파시설 22개소에 대해 건축물 구조파악, 마감재 사용, 소방시설, 비상구·피난통로 관리실태 등 정밀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법제도·안전시설 개선, 훈련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집중 단속을 통해 관계인의 안전점검 이행 여부와 소방시설·비상구·피난시설 패쇄·훼손·장애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엄중 조치하고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제천 화재 시 목욕장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중·소규모 목욕장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 실시 등 안전관리 사항 방지도 철저한 대비를 할 예정이다.

조여은 기자

경북소방, 연말 맞아 특별경계근무

도내 18개 소방관서 동시 돌입

경북소방본부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대형화재 예방 및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도내 18개 소방관서 동시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들 뜬 분위기에 휩싸여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고 24시간 화재예방 감시체계를 가동해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다.

소방본부는 특별경계근무 기간 동안 소방공무원 3400여명, 의용소방대원 1만2400여명의 인력과 840대의 소방장비를 투입해 즉시 출동 가능한 상태로 비상대기 태세에 임한다.

또한 주요 전통시장, 쇼핑몰,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과 순찰로 재난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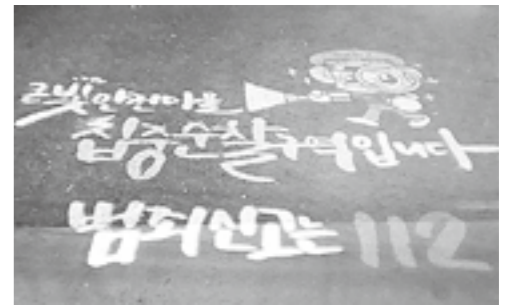
특히 소방본부는 올해 연말연시를 AI확산의 분수령으로 판단하고 도내 22개 시·군 거점소독시설 23개소에 소방차를 이용한 급수 지원을 24시간 실시한다.

또 의용소방대원과 함께 축산농가 차량출입통제, 방역활동 등 AI확산 저지를 위해 가용 소방력을 총 동원한다.

새해맞이 주요 행사장 등 다중이용장소에는 사전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방차량과 소방공무원을 현장에 전진 배치해 유사시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행사장 안전관리를 진행한다.

한편, 소방본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화가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도내를 지나감에 따라 성화봉송 관계자 투숙 숙박시설 3개소에 대해 특별 소방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매일 총 3회에 걸쳐 취약시간특별소방안전 순찰을 한다. 김용구 기자



범죄 예방시설 로고젝터 설치 대구 남부경찰서

대구 남부경찰서는 대명2동에 범죄 예방시설물인 '로고젝터'를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교대역까지의 골목길과 인적이 드문 주택가 6곳에 설치했다.

로고젝터는 벽면, 바닥, 천장 등에 빛을 비추면 이미지와 텍스트가 나오는 LED 장치다. 박홍규 기자

사람이 우선! 자동차는 차선!

문제1. 네모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자동차에 타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안 전 띠 를 매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이는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TS 교통안전공단

경주시의회, 제229회 제2차 정례회 폐회

내년도 세입·세출안 등 심의 의결 총 10회 90일간 의사일정 마무리

경주시의회는 지난 22일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난달 30일부터 23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229회 제2차 정례회가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 했다.

이번 정례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휴회기간 중에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했고, 지난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휴회기간인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했다.

지난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윤병길, 김동해, 한순희, 김영희 의원이 시정질문을 실시해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

22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제3차 본회의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이어갔다.

이동은 의원은 현곡면에 건설중인 성호건설 주상복합아파트와 현곡푸르지오의 준공으로 인한 금장교 주변 교통대란에 대한 대책과 경주 시가지 주변 관광지(황리단길 등)에 차 없는 거리를 확대 시행할 추가 계획, 가정 유림대교(제2급장교) 건설 사업이 2018년 당초 예산에 전혀 편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최덕규 의원은 주말 및 공휴일, 행정철 등 부사적지 일일 및 보문단지 교통소통 대책과 외동읍 지역 원룸 신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유발 가능성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정현주 의원은 황룡사역사문



화관을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 제안과 황룡사역사문화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유물 확보계획, 시설관리공단의 인적 구성의 적절성, 채용에 대한 위법여부,

일반직의 직무수행이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경주시 안전을 위해 지진재난과 방사능에 대해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장·단기 대책

에 대해 질의를 끝으로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8회 45일, 총 10회 90일간의 2017년 전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윤용환 기자

포항시, 지진 여파 대성아파트 A동 긴급 대피

이강덕 시장, 시민 불안 해소 정밀점검 위해 현장 직접확인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23일 11.15 지진피해 건축물 정밀점검 결과 주요 구조부인 기둥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된 대성아파트 A동 30세대의 즉각적인 대피를 지시했다.

대성아파트 A동은 최초 위험도 평가결과에서 사용제한으로 판정됐으며, 이날 이강덕 시장이 직접 정밀점검 전문업체와 함께 지하 설비공간(피트층)을 확인한 결과 지하층 기둥 55개 중 13개에 전단파괴 현상이 발견됐다.

시는 "주요부재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검업체의 의견에 따라 23일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성아파트 A동 30세대를 흥해실내체육관 등으로 대피시켰다.

24일에는 흥해읍사무소에서 이주설명회를 가지면서 이재민들에게 이주절차를 안내했으며, 대성아파트에는 즉시 보강업체를 투입해 위험방지 긴급 보강공사를 진행했다.

앞서 포항시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3일까지 4차에 걸쳐 피해 건축물 2,675개소에 대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용제한은 166개소, 위험은 132개소로 파악했으며, 그중



피해가 심각하거나 대규모 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노유자 시설은 현재 95개소로, 시는 30개 용역진단업체를 선정해 이들 건축물에 대해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정밀점검 업체를 대상으로 신속한 복구대책, 용역수행 점검을 위한 긴급 회의를 소집해 철저한 점검을 당부하는 한편, 지난 18일 부터는 한동맨션, 세종황제맨션, 대흥온천맨션 등 흥해지역 주요 피해 공동주택

10개소에 대해 직접 점검상태 확인하고 있다. 정밀점검은 업체당 4~10명이 투입되어 벽의 균열, 콘크리트 탈락, 철근 노출 등 명발한 외관 조사와 슈미터 햄머 장비를 이용한 비파괴강도 시험,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이용한 콘크리트 중성화시험, 레이더 탐사기를 이용한 철근탐사 등을 측정해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밀점검이 완료된 공동주택은 주민 설명회를 열어 점검용역 업체에서 직접 점검 내용을 중심으로 구조와 각 세대에 대한 점검사항과 건축물의 구조적 상태 등급을 설명하고, 보수·보강방안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강덕 시장은 "무엇보다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정밀점검 진행중에 안전문제 건축물이 발생하는 즉시 주민 대피 등 안전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4일 현재 대성아파트 A동 30가구를 포함해 이주대상 570가구 중 62.5%인 356가구가 이사를 마친 상황이다.

특히, 1단계 이주 대상인 대동빌라, 대성아파트 이재민 238가구 중 92%인 218가구가 이사를 마쳤으며, 추가된 2단계 332가구 중에서도 118가구가 이주를 마치는 등 이재민들의 새 보금자리 찾기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강동진 기자

포항시 "도심 속 겨울스포츠를 즐기자"

야외스케이트장·썰매장 개장 내년 2월 5일까지 45일 운영

포항시가 23일 종합운동장 내 시민볼링장 뒤편 주차장부지에서 겨울스포츠를 만끽할 수 있는 야외스케이트장 및 썰매장 개장식 행사를 가졌다.

겨울스포츠 불모지인 포항에서 도심 속 겨울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야외스케이트장 및 썰매장은 내년 2월 5일까지 45일간 운영된다.

이날 개장식은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문명호 포항시장, 시설관리공단, 체육회 관계자,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 보고에 이어 기념사, 테이프커팅과 스케이트 시연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돼 지역에서의 첫 야외스케이트장 개장을 다함께 축하했다.

야외스케이트장 및 썰매장은 300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1500㎡ 규모로 휴게소와 매점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 및 공

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이용요금은 2000원(입장료 1000원, 스케이트 및 썰매대여료 1000원)으로 초보자를 위한 강습 및 다양한 체험행사도 마련될 예정으로 가족과 연인 등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덕 시장은 "시민들의 이용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운영하고, 이용자 모두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새로운 겨울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동진 기자



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 연말결산대회

봉사활동 유공회원 표창 회원간 단합의 시간 가져

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는 지난 21일 웨딩파티엘에서 '2017년 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 연말결산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 김상근 회장을 비롯한 김영숙 여성회장 등 2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유공회원 표창 및 2017년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2018년을 맞이하기 위한 회원 간 단

합의 시간을 가졌다. 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는 경주시 시정발전에 협조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힘쓰고 있으며, 지역의 이웃들에게 짜장면 봉사, 독거노인 목욕봉사, 영정사진 촬영 봉사활동 등 여러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김상근 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정을 나누고, 항상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윤용환 기자

포항시,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포항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됐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대표성, 경제활동, 돌봄, 안전, 인프라 분야의 평가를 통해 포항시를 비롯 11개 1단계 여성친화도시의 5년간 추진실적과 2단계 계획을 평가해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했다.

이번 재지정으로 포항시가 추진하게 될 2단계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내년 1월 여성가족부와 협약식을 가진 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포항시의 2단계 사업 역점 추진목표는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여성의 경제

활동 활성화, 돌봄의 사회화·가족친화 문화, 살고 싶은 안전·건강 도시 조성, 여성 활동·문화 역량 제고이다.

시 관계자는 "2단계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1단계 사업 추진으로 구축된 민관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시민참여형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시민이 함께 누리는 양성평등 행복도시 포항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동진 기자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에 위치한 전시·컨벤션 센터

경주시議會 http://gicouncil.or.kr

경주로 오세요!

새로운 마이스시대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일어납니다.

**경산 청도
영덕 울진
청송 영양
울릉**

광고·구독안내
053257-0000

**울진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평가 '대상'**



울진군은 지난 22일 경북도가 주최한 보건사업 평가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군부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경북도내 25개 보건소 중 시·군 각 1개 기관만 선정하는 평가에서 당당히 최고 평가를 받은 쾌거로, 이는 지난 2014년 보건지소 4개소를 추가로 보강해 울진군 전역(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 주민 밀착형 보건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됐던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김형삼 기자

**경산시, 청년 취업날개
코디네이터 사업 실시**

경산시는 2018년부터 면접을 앞둔 청년층 취업준비생들이 직장 구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장무료대여 서비스 '청년 취업날개 코디네이터' 사업을 실시한다.

'청년 취업날개 코디네이터' 사업은 청년들이 면접을 위해 정장을 구입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경산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39세 이하 면접을 앞둔 청년들은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 취업날개 코디네이터' 사업이 시행되면 면접용 정장과 셔츠, 블라우스, 넥타이, 구두 등 의류 일체를 대여 받을 수 있어 면접을 앞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청년 취업날개 코디네이터' 사업은 단순히 의상만 빌려주는 역할을 넘어 체형에 맞고 분위기에 어울리는 의상을 추천, 면접예절교육 및 면접 시에 가장 중요한 좋은 첫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등 이미지 컨설팅 서비스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변형상 기자

청송 마이스산업, 밝은 미래가 보인다

마케팅 1년 만에 마이스 행사 22건, 2500여명 유치 성과 전국 군단위 차지단체 최초 '청송마이스관광뷰로사업단' 설립

청송군이 마이스(MICE)산업에 야심찬 도전장을 내민 지 1년 여 만에 알찬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전국 군단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7월 MICE 마케팅 전담조직인 청송마이스관광뷰로사업단을 설립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유치 마케팅에 들어갔다.

사업단은 40개국 400여명의 국내외 과학영재가 참여하는 2019년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문화탐방 유치를 시작으로 2021년 IEEE 회로 및 시스템 국제학술대회, 세계트리플렉스 학술대회, 대경 ICT 하계 세미나, 한국약용작물학회 춘계학회 등 2017년 한 해에만 22건 2428명의 행사를 직접 유치했고, 이 중 16건의 행사를 개최·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상주-청송-영덕 고속도로 개통,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 대명리조트 개관 등의 파급효과로 4만여명의 MICE 참가자가 청송을 찾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대구·경북의 주요 기업 및 기관

임직원, 교수, MICE 관광 관계자를 대거 초청해 '2017년 청송 MICE DAY'를 성황리에 개최했으며, 이때 아름다운 청송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다양한 MICE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청송 MICE 관광 홍보대사'로 대구컨벤션뷰로 백창곤 대표, 계명대학교 하영석 기획정보처장, ㈜심표와 느낌표 김미란 대표이사 3인을 위촉했다.

또한, 대한민국 최대 마이스 전문 박람회인 2017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에 독립형 홍보부스를 운영해 바이어와 참가객이 선정하는 베스트 디자인 어워드 상을 수상해 큰 주목을 받은 바 있고, 경상북도가 주최하는 유니크 베뉴 공모전에서는 임업인종합연수원이 우수상을 수상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대외협력 사업에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한편, 청송군이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지원대상 및 조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행사유치·개최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 것도 성과를 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사업단은 2017년에 이어 내년에도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빠른 실행력으로 실질적 성과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가장 청송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생각으로 청송만이 주도할 수 있는 글로벌특화포럼 개발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타운미팅을 진행해 주제발굴을 완료했고,



청송마이스(MICE)관광뷰로사업단은 '청송 MICE 관광 홍보대사' 3인을 위촉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그 결과 청송형 관광과 MICE 활성화를 위한 국제행사인 '청송포럼'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국제슬로시티 분야의 저명한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를 초청해 내년 3월 30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공공회 및 학술대회 분야에 보다 집중하고, MICE와 관광의 성장 강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 협의체인 '청송 MICE 관광 얼라이언스'를 활성화해 지역 밀착형 마이스 모델

을 만들어 낸다는 방침이다.

한동수 청송군수는 "청송마이스관광뷰로사업단이 출범한 지 만 2년이 되지 않았지만 벌써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2018년에도 청송군이 잘 할 수 있는 국내 중·소규모 세미나, 워크숍, 인센티브 투어를 집중적으로 유치·마케팅하고 대구, 안동, 영덕과 같은 인근 도시와의 협력을 통해 수도권과 해외시장의 문도 두드려 보겠다"고 말했다.

김용구 기자

울릉군, 내년 예산 1570억 편성

**민선6기 공약사업 마무리
민생현안해소에 중점**

울릉군은 내년도 재정 규모를 올해보다 1.95% 증가한 157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540억원보다 30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2.52% 증가한 1543억원,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22.86% 감소된 27억원으로 편성됐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나눠보면 국가보조금과 같은 의존재원의 경우 울릉개발촉진지구 사업 등 대형 국비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소폭 감소됐지만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약 2억원, 지방교부세 59억원, 조정교부금이 8억원

증가함에 따라 군 재정자립도는 53.67%로 올해 대비 3.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도 주요 시책사업으로는 △연안정비사업 48억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37억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사업 31억 △노후상수도망정비 사업 25억 △광역상수도시설 사업 11억 △CCTV 통합관제센터 사업 11억 △지역현안도로 사업 10억 등 균형 현안 해결과 주민 불편해소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했다.

또한, 신규 시책사업으로는 △울릉군 공공와이파이구축 1억 △맞춤형 전기차 보급 12억 △울릉친환경비지연 2억 △저소득층집수리 사업 1억 △어업경제발전유류비 지원 9억 △농산물집하장 보강 1억 등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에 중점을 뒀다.

정윤환 기자

**영양군, 동절기 상수도시설
관리 방안·홍보 회의 실시**



영양군 환경보전과에서는 지난 21일 동절기를 맞이해 수도계량기의 동파 및 동절기 각종 상수도 시설의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읍·면 상수도업무 담당공무원과 급수공사대행업체, 수도검침원 등이 참석한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 겨울 우리나라는 대륙고기압과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의 급강하가 예상되는바, 상수도시설의 동파 방지 대책, 시설물 점검, 난방철저 등을 통해 군민생활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예방하는 내용을 전달했다.

또한, 계량기가 동파됐을 때는 급수공사 대행업체를 활용해 신속하게 복구할 것을 당부했다.

권윤동 기자

민주평통 영덕군협의회, 의장 표창·국민훈장 수상



김옥순 자문위원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김은숙 여성분과위원장 국민훈장 수상

**김옥순 자문위원 의장(대통령) 표창
김은숙 여성분과위원장 국민훈장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덕군협의회 김옥순 자문위원이 지난 20일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개최된 경북지역 의장표창 전수식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김은숙 여성분과위원장이 21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7년 평화통일기반 구축 유공자 포상 전수식'에서 국민훈장(석류장)을 수상했다.

김옥순 자문위원은 협의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지역사회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지역사회 발전 및 봉사활동 부분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상을 수상하게 됐다.

김옥순 자문위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으로서 한반도의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은숙 위원장은 제10기-제18기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16년간 협의회 부회장을 비롯해 여성분과위원장을 역임하며 자문위원 상호간 화합 구축,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인식 고취 사업을 실시, 통일논의 활성화 및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며 남다른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통일기반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김은숙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고 현 정부의 통일정책 전반에 관한 관심과 건의등을 통해 지속적인 통일활동과 미래통일 준비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승건 기자

**울릉도·독도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겨울여행**

동쪽 제일의 환상적인 풍경...
내인에 낭만과 젊음을 일깨우는 출렁이는 파도와 함께~
산과 함께~ 겨울여행을 떠나요

세계속의 울릉, 명품
녹색관광섬 조성!



더 빠르고 안전한 행복의길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당신만 혼자 죽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사고시,
뒷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람은
본인의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동승자의 사망률도 7배로 높입니다
귀찮아서 불편해서 잘 매지 않으십니까
뒷좌석 안전띠,
더이상 혼자만의 안전띠가 아닙니다

안전이 첫 번째 길이다

